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포트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김세은

자료제공: 이상민



Material focus-Spot project-3편

유리공예가

이상민



Spot-Project

기획의도

종이나 도자기에서 출발하는 화이트 컬러 또는 가볍고 단순한 컬러 무드(color mood)가 점차 중요해진다. 글라스, 우드, 페이퍼 등의 원재료에 대한 컬러와 표면 효과, 라이팅의 접목 등으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동향. 이에 세라믹, 글라스, 페이퍼 소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공예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세라믹 디자이너 김하윤, 유리 공예가 이상민, 한지 조명 디자이너 김재성 3인을 선정해 원재료를 통해 도출하는 그들의 창의성을 엿보고 이를 통해 크라프트맨십에서 영감을 받는 디자인 산업분야의 내일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터뷰 형식은 그들이 생각하는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와 철학에 대하여 스폿 취재형식의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사진-1> 유리조형제작실 / 이상민 교수 교수실

현재에 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던 조형분야에서 약 10 여년 전부터 새로운 재료를 사용 하기 시작 하였다. 공업용 재료로만 사용되던 유리가 아트의 조형적 요소와 만나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의상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 길에 올랐던 그는 유리공예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어 전공을 전향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 된 남서울대 유리공예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유리공예에 대한 실력은 높이 평가 되고 있으며, 단시간에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상상 속의 이미지라는 그의 작품 세계와도 멀지 않은 바람과 유리의 만남은 새로운 개념의 시도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었다.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하며 융합 가능한 유리에 대하여 풀어 본다.



사진-3> Float



사진-4> the landscape of synchronism

‘유리’ 그 물성의 공존성

‘유리는 투명함과 다시 비춤을 반복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비추기도 하지만 다시 비춤으로 과거를 보여준다.’
그 어떤 재료 보다 다루기 까다롭고 다양한 기법을 갖고 있는 유리... 그만큼 누구나 다룰 수 없고 그 물성에 대해 충분히 마스터해야 다룰 수 있는 접근성이 어려운 유리는 그 만큼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 온다.
회화나 조각, 디자인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사용되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유리의 특성이다.



사진-5> movement



사진-6>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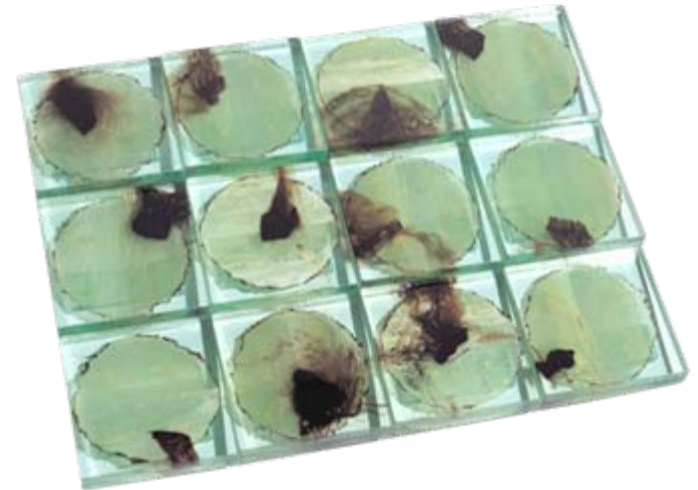


사진-7> Plate glass laminated
a leaf of tree 1998

상상 속 이야기의 가상 형태 – 미래감성이 추구하는 디자인과 감성

소리, 냄새, 옛 기억의 향수, 물의 형상...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유리에 담아 낸다. 유리가 소리나 냄새를 품고 있는 물성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의 무한한 변형을 통해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담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유리의 가장 큰 특성인 투명성을 토대로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를 흔적이나 색, 빛으로 시간과 공간을 유리라는 재료 속에 넣어 표현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 하는 시적인 형상으로 연출되는 것이다. Peclers Futur(s)9에서 말하는 미래 예측 시점에서 볼 때, '맛으로 표현하자면 '우마미'(umami : 감칠맛)로 표현되는 것... 입 속 점막에 닿는 느낌, 혹은 목에서 코로 퍼지는 향기, 눈에 보이는 음식의 색깔 등 실로 무수한 감각이 종합되어 생겨나는 맛.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만져서 알 수 없는 것...등은 복합적 양상으로 예측되는 미래감성이 추구 하는 디자인과 감성(Design and Emo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그의 작품 세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작품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마인드...

미술에 있어서도 공예나 조각에 대한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며 디자인와 아트의 접목으로도 새로운 것들이 시도 되고 있는 현 시대를 그는 뉴 포스트모던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성으로 장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이시기에 모든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이나 공예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마인드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있다.

- 1> 핸드메이드(handmade) 필요
- 2> 반복성 거부 / remitted edition
- 3> 지속적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단순히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작품이 아닌 수공예적인 요소는 사람의 손에서만 느낄 수 감각적인 요소가 진정한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며, 대량생산으로 나오는 제품들 보다는 한정생산을 통한 희귀 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그가 휘센 에어컨과 콜레보레이션(collaboration) 했을 당시에도 대량 생산 판매가 아닌 소량의 한정판매의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꿈을 꾸고 새로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며 지속적이고 진보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들이 합쳐져 제품 혹은 예술 작품이 완성될 때 이는 소비자와 관객들에게 가치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써 인식되며, 다양한 제품과 물건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새로운 시장성을 엿보고 소비동기의 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약력

프랑스 국립 Strasbourg(스트라스부르그) 마르블록 인문대
학원 조형예술대학 졸업(MFA)
프랑스 국립 Strasbourg(스트라스부르그)고등장식미술학교
졸업 (BFA, MFA)
1990-2000 프랑스에서 수학 및 작품활동

現-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부교수/ 작품활동

전시

주요전시

2009 KCAF 한국현대미술제(예술의 전당, 서울)
2008 공시성의 풍경(빛 갤러리, 서울)
Essentielle (코리아 아트센터, 부산) / KIAF (코엑스, 서울)
SEA (이듬 갤러리, 부산)
2인전(이상민, 이재효) 화랑미술제 (백스코, 부산)
2007 CROSS OVER (모아 갤러리, 헤이리)

*1995년~현재, 다수 전시

수상

1999 일본 현대미술전 대상, Bourgueil 프랑스
1994 국제 눈 조각전 최우수상,
Quebec Canada 프랑스 대표작가로 출전
1994 유럽청년작가 공모전 수상